

필리핀의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8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0
V. 우리나라와의 관계.....	11
VI . 종합의견	12

필리핀

I. 일반개황

면적	300천 Km ²	GDP	1,441억 달러(2007년)
인구	91.10백만 명(2007년)	1인당 GDP	1,582달러(2007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 공화제	통화단위	Peso
대외정책	친서방 민주주의	환율(달러당)	41.4(2007년 말)

- 1946년 7월 미국으로부터 독립하였으며 대통령중심제와 양원제의 정치 형태를 취하고 있음.
- 동, 니켈, 임산자원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9,100만 명에 달하는 동남아 주요 국가임.
- 지역간 및 계층간의 심한 소득격차, 정치권의 부정부패, 회교 반군과의 오랜 분쟁 등으로 정치, 사회의 불안요인이 잠재되어 있음.
- 2001년 1월 아로요 정권이 들어서면서 서방 각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있으며, 정부는 경제구조의 개혁, 빈민계층의 소득 향상을 겨냥한 경제정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음.

II. 경제 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e	2008 ^f
경제성장률	6.4	5.0	5.4	7.2	4.7
재정수지 / GDP	-3.9	-2.7	-1.0	-0.2	-0.8
소비자물가상승률	6.0	7.7	6.2	2.8	9.6

자료 : IFS, EIU

□ 2007년, 7.2%의 높은 경제성장 시현

- 2005년 가뭄에 따른 농산물 작황 악화, 고유가 현상 및 중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입수요 둔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5.0%로 둔화되었으나, 2006년 전자제품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활성화, 농산물 작황 호조, 소비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5.4%로 상승하였음.
- 2007년 해외 근로자 송금 증가에 따른 소비수요의 증가, 정부지출 확대, GDP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서비스 부문의 8.1% 성장 등으로 인해 7.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 그러나 2008년에는 미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부진과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에 따른 민간 소비 감소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4.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인플레이션 우려 증대

- 2007년에는 식료품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폐소화 강세로 인해 수입 단가가 하락하면서 2.8%의 낮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들어 주요 식료품 가격 상승과 국제 고유가의 영향으로 9.6%의 높은

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2008년 6월 기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4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11.4%를 기록하였는데, 주요 식료품인 쌀 가격이 전년 대비 43% 상승하면서 이러한 물가상승을 이끌고 있음.
- 필리핀 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베트남으로부터의 대량 쌀 수입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높은 상황임.

□ 재정수지 적자 감소 추세

- 동국은 세수기반 취약 등의 이유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에 시달리고 있으나, 2002년 이후 정부의 긴축정책과 재정수지 적자 해소 노력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음.
- 경기회복에 따른 세원 증대, 국영 통신회사의 민영화 등을 통해 재정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07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0.2%를 기록하였음.
- 하지만 2008년에는 높은 물가상승으로 인해 식료품 지원, 현금보조금 지급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0.8%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유류 등에 대한 높은 수입 비중

- 필리핀은 유류 등에 대한 수입 비중이 높아서, 국제유가의 상승은 소비자물가상승률 급등(2004년 6.0%, 2005년 7.7%, 2006년 6.2%) 및 경제성장률 저하(2004년 6.4%, 2005년 5.0%, 2006년 5.4%)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해외 근로자 송금에 대한 의존도 심화

- 필리핀의 상품수지는 만성적인 적자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해외 근로자의 송금 덕분에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이는 필리핀 경제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근로자 송금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미국, 일본, 홍콩 등 필리핀 근로자가 많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들의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경우, 필리핀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수출구조의 취약성

- 2006년 기준으로 총 상품수출(465억 달러)에서 전자제품 수출(296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이 63%를 넘어설 정도로 수출품목 다변화가 부족한 상황이며, 총 수출의 약 35%가 미국과 일본 양국에 집중되어 있는 점도 구조적 취약성으로 지적되고 있음.

□ 과중한 외채상환 부담

- 전반적으로 외채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나,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및 단기외채 비중 등은 여타 동남아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경제개발 등에 발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정부 재정의 상당 부분이 외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임.

나. 성장 잠재력

□ 높은 성장 잠재력의 활용 부진

- 풍부한 광물자원, 인구 9,110만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 영어에 능통하고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한 노동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면 성장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역대 정권의 경제정책 추진 일관성 부족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여 왔으며, 소득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빈부격차가 매우 큰 상황임.

□ 콜센터 서비스 산업의 성장 가능성

- 필리핀은 인도와 함께 전세계 콜센터 서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2006년 기준으로 100개가 넘는 기업에서 약 11만명이 콜센터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음.
- 필리핀은 영어에 능통한 노동력이 많아 콜센터 서비스 사업 유치에 유리하며, 정부가 콜센터 서비스 직원 전문 양성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됨.

다. 정책 성과

□ 재정수지의 만성적인 적자기조 개선

- 세수기반 부족 및 각종 조세징수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2002년 필리핀의 재정수지/GDP 비율이 -5.3%에 달할 정도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이었음.
- 2002년 이후 아로요 정부가 재정수지 적자 축소를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에 두고 재정수지 적자 개선 노력을 한 결과, 재정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GDP의 -1.0%, 2007년에는 -0.2%를 기록하였음.
- 재정수지 적자 개선은 상당 부분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따른 재정수입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써, 2008년말까지 국영 발전회사인 National Power Corporation(Napocor)의 지분 70%를 매각하는 등 국영기업 자산 매각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

□ 조세제도 개선 노력 지속

- 현재까지 경제개혁 속도는 정치적 불확실성 및 국내 이익집단의 강한 반발 등으로 인하여 당초 목표에 비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나, 정부가 세수 기반을 확충하고 세제 관련 제반 법률을 꾸준히 개혁해 나가고 있어 향후 세금 징수율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2004년 12월 주류 및 담배의 물품세율을 인상하는 법안이 가결되었고, 2005년 6월 부가가치세의 세율 인상 및 면세대상 축소 조정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재정수지 적자 축소에 기여하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e	2008 ^f
경 상 수 지	1,628	1,984	5,347	6,351	4,756
경 상 수 지 / G D P	1.9	2.0	4.5	4.4	2.8
상 품 수 지	-5,684	-7,773	-6,732	-8,236	-10,446
수 출	38,794	40,263	46,526	49,321	49,404
수 입	44,478	48,036	53,258	57,557	59,850
외 환 보 유 액	13,116	15,926	20,025	30,211	36,219
총 외 채 잔 액	61,095	61,718	60,324	61,782	64,941
총 외 채 잔 액 / G D P	70.3	62.4	51.3	42.9	38.8
D . S . R .	19.8	16.0	18.9	12.7	11.9

자료 : IFS, EIU

□ 상품수지는 적자 기조 유지

- 필리핀의 상품수지는 지속적인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2007년 총 상품수출이 전년 대비 6% 증가하였으나, 고유가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수입액이 더 큰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2006년 대비 22% 증가한 82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08년에도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의 경기둔화로 인해 주요 수출품인 전자제품, 반도체 등의 수출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반면 수입의존도가 높은 주요 원자재와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인해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 흑자 지속

- 상품수지 적자 기조에도 불구하고, 해외근로자 송금액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이전수지 증가, 관광업 호조로 인한 서비스 수지 개선 등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음. 이로써 2007년 64억 달러, 2008년 48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지의 지속적인 흑자 기록에 힘입어 경상수지/GDP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7년 4.4%를 기록하였고, 외환보유액은 2008년 5월말 기준 324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대외지급불능 발생 가능성 낮음

- 2007년 총 외채규모는 618억 달러 수준으로 2003년 이래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나, GDP 대비 총 외채잔액 비중이 43%로서 외채상환 부담은 과중한 편으로 판단됨.
- 필리핀의 외채상환 부담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최근 D.S.R 및 단기외채 비중이 다소 개선되거나 안정화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단기적으로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정부사업 비리 의혹으로 아로요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약화

- 2007년 10월 필리핀 정부가 중국 차관자금으로 추진한 정부기관간 전산망 구축사업(329백만 달러)과 관련해서 중국 ZTE사가 사업주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130백만 달러의 뇌물이 아로요 대통령의 남편 호세 미겔 아로요와 정부 고위관리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주장이 입찰에서 탈락한 베네시아 하원 의장의 아들과 관계자들에 의해 폭로되었음.
- 이에 따라, 현 정부와 아로요 대통령 일가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며 아로요의 정치적 기반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아로요 대통령 3번째 탄핵안 부결

- 야당이 정부의 전산화 사업 관련 비리 의혹을 이유로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3번째 탄핵안을 제출하였으나, 여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2007년 11월 절대적인 표차로 탄핵안을 부결시켰음.
- 이로써 탄핵안이 부결된 후 1년 동안 또 다른 탄핵안의 발의 금지 규정에 따라, 앞으로 2008년 10월까지 아로요 대통령은 탄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

□ 낮은 정권 붕괴 가능성

- 정부의 전산화 사업 비리 의혹으로 인해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아로요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약화되었지만, 아로요 대통령이 핵심적 권력기반인 의회와 군의 지지를 받고 있고, 아로요 이후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아로요 대통령은 2010년 임기까지는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민들이 고위 권력자들의 부정부패에 둔감해졌고, 과거 2차례 민중혁명(People Power)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데 따른 실망감으로 다시 혁명을 시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정권이 붕괴되거나 정정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됨.

2. 사회동향

□ 정치, 사회적 불안 요인 상존

-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국내 과격단체들에 의한 납치, 테러 및 무장충돌 등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 불안요인이 상존해 왔음. 민다나오섬의 회교분리주의 세력인 모로이슬람해방전선(Moro Islamic Liberation Front; MILF), 루손섬을 주 활동무대로 하는 공산주의 게릴라 단체인 신인민군(New People's Army; NPA) 등이 대표적인 무장 과격단체임.

- 또한 고질적인 부정부패, 높은 실업률, 빈곤층의 불만 등으로 인해 대 정부 항의시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정치적 문제로 인한 군중시위도 자주 발생하는 편으로 1986년 2월 마르코스 전 대통령, 2001년 1월 에스트라다 전 대통령의 축출도 국민들에 의해 주도된 것임.

□ 이슬람 반군과의 갈등 심화

- 필리핀 정부와 모로이슬람해방전선(MILF)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중재 아래 지난 1년여 동안의 협상을 통해 남부 민다나오섬의 700여개 마을에 추가로 이슬람 자치를 허용하는 협상안에 최종 서명을 기다리고 있었음.
- 그러나 가톨릭계 시민들과 국회의원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필리핀 대법원은 협상안에 대한 서명을 한 달간 유보하도록 정부 측에 요청하였음. 이에 실망한 이슬람 반군들은 민다나오섬의 가톨릭 마을을 공격했고, 정부 역시 이에 무력 대응하며 2008년 8월 들어 144명이 사망하는 등 양측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 민다나오섬은 과거 이슬람인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2차 대전 후 필리핀의 영토가 되어 가톨릭 세력들이 이주해오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음. 이로 인해, 이슬람 세력들은 자치권을 주장하며 필리핀 정부와 투쟁을 계속하였고, 이 과정에서 12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음.

3. 국제관계

□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 노력

- ASEAN의 주요 회원국으로서 여타 회원국들과의 관계 강화에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중국과는 남중국해에 위치한 남사군도(Spratly Islands)에 대한 영유권 문제가 양국간에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으나, 양국간 급증하는 무역 및 투자에는 장애가 되지 않고 있으며, 남사군도에 대해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등 국가들도 일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ASEAN을 중심으로 영유권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임.

□ 미국과 긴밀한 관계 유지

- 필리핀은 과거 미국의 식민지로서 현재까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필리핀의 최대 교역국으로 2007년 기준 총 수출의 17.7%, 수입의 14.7%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은 민다니오섬의 이슬람 세력 진압 지원을 비롯해 동국과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2008년 1월 16일 양국은 군수물자협력협정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하고, 양국간 군사물자의 수송과 관련된 서비스에서 협력을 약속하였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 상환 태도

□ 정상적인 채무상환

- 필리핀의 외채상환 부담은 과중한 편으로 2006년 채무상환 연기를 요청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필리핀은 2006년 1월 채무재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있음.
- 최근 외환보유액 증가 및 경제상황 호전으로 2010년 만기 IMF 차관 중 37.6억 달러(잔액의 50%)를 2006년 6월 조기상환 한 바 있음.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채무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D.S.R 수치와 단기외채 비중이 개선되는 등 외채관련 지표들이 좀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사회 안정 분야에 대한 향후 전망이 엇갈리면서 신용도 등급 움직임은 신용평가기관 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음.
- Moody's : Ba1(1997. 5) → Ba2(2004. 1) → B1(2005. 2)
- S&P : BB+(1997. 2) → BB(2003. 4) → BB- (2005. 1)

- Fitch : BB+(1999. 7) → BB (2003. 6)
- OECD. : 4등급(2001. 1) → 5등급(2004. 4) → 4등급(2008. 4)
- Euromoney : 81/185(2007. 3) → 78/185(2007. 9) → 77/185(2008. 3)
- I.I. : 73/174(2007. 3) → 70/174(2007. 9) → 74/174(2008. 3)
- I.C.R.G : 80/140(2007. 7) → 84/140(2008. 1) → 80/140(2008. 7)

3. 주요 ECA의 지원태도

□ 주요 ECA의 인수 태도

- 미국 수은 : 부보위험 제약조건 가능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 전액인수가능
- 네덜란드 Atradius : 단기 인수가능, 한도적용 없음

V.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49년 3월 3일(북한과는 2000년 7월 12일)

□ 주요협정: 항공운수협정(1969), 무역협정(1978), 경제기술협력협정(1983), 이종과세방지협약(1984), 투자보장협정(1994)

□ 전통적 우방국으로 경제협력에서도 긴밀한 관계 유지

- 전통적인 우방관계인 양국은 최근 들어 경제협력 측면에서도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교역은 2007년 수출 44억, 수입 24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 필리핀 해외직접투자도 2008년 6월말 현재 제조업과 건설업 중심으로 2,884건, 1,046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단위: 천달러)

구 분	2005	2006	2007	주요 품목
수 출	3,219,714	3,930,517	4,420,334	반도체,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수 입	2,316,037	2,186,564	2,438,257	반도체, 동제품, 곡실류

VI. 종합 의견

- 2007년에는 해외 근로자 송금 증가에 따른 소비수요의 증가, 정부지출 확대, 서비스 부문의 양호한 성장 등으로 인해 7.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2008년에는 미국의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부진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급등으로 인한 민간 소비 감소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4.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전산화사업 비리 의혹으로 아로요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로요 대통령에 대한 3차 탄핵안이 하원에서 부결된 데 이어, 아로요 대통령이 핵심적 권력기반인 군과 의회의 지지를 얻고 있고, 아로요 이후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아로요 대통령은 2010년 임기까지는 큰 혼란 없이 정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필리핀은 외채부담이 과중한 편이나, 외환보유고 증가 및 외채관련 지표 개선 등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에 대외지급불능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